

교회 목표

신앙인 예배
친구인교인 양성
번복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주간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3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빌립보서 1:21)

발행처: 강원도 춘천시 교동로 100-1 춘천교회 사도복음식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국장: 조순근

오늘 교회일꾼 선출합니다

**장로 10명 안수집사 60명, 오는 4부예배 후 본당에서
모든 세례교인 참석·투표해야**

4월 16일에 열린 공동의회의 결의에 따라 오는 4부예배 후 본당에서는 모든 세례교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장로 10명과 안수집사 60명의 선출을 위한 투표가 실시된다. 당회는 지난 23일 주일에 10명의 장로선출을 위해서 1.5배수인 15명의 후보자를 추천하고, 60명의 안수집사 선출을 위해서는 피택위원과 동수인 60명을 추천하되 당회원들이 일차로 투표하여 득표수에 따라 교회 앞에 공고한 바 있다. 성도들은 지난 주일에 배부된 후보자 명단을 참조하여 기도하는 중에 투표에 임해야 하겠다. 한편 지난 18일 임시 당회를 통해 선출된 80명의 권사명단은 다음 주일에 장로·안수집사 피택자와 함께 '주간충현'에 발표될 예정이다.

2000년도 제3차 성찬식

그리스도 안에서 성결케 하소서

다음주일 1-5부 예배시

오는 5월 첫 주일에는 1-5부 예배시에 2000년도 제3차 성찬식이 거행된다. 성도들은 준비된 마음으로 참여하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성도들이 성결하게 됨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건축되어 가는 온전한 성전으로 다시금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겠다. 또한 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승리와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임하는 능력을 통해 교회 안에 기도의 불길과 말씀의 역사가 강물처럼 흐르도록 기도의 힘을 하나로 모을 수 있어야 하겠다.

소년부 찬양대

**통일기원 선교찬양대 참가
5월 5일(금) 임진각에서**

우리교회 소년부 찬양대는 5월 5일 임진각에서 열리는 통일기원 선교찬양 및 중보기도회(주최: 기독교 21세기 운동본부·연이선교회)에 참가한다.

전도위원회 남녀전도부 지회 영성훈련

5월 2일(화) 오후 7시 30분 갈릴리움에서

전도위원회 남녀전도부는 오는 5월 2일(화) 저녁 7시 30분에 갈릴리움에서 지회 영성훈련을 실시한다. 전도위원회는 금번 영성훈련에 모든 전도회 일꾼들로 하여금 태신자를 작정하고 이들을 심령에 품고 기도하며, 주께서 허락하시는 때에 복음을 증거하고 양육하는 사역자로 세우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금번 영성훈련의 강사는 이흥성 목사(전도위원회 지도)이며, 참석대상자는 전도위원회의 위원과 실행위원, 그리고 각 지회 회장과 부회장, 서기와 회계, 전도부장 등이다. 당일 오후 6시 30분부터는 만찬에서 저녁식사가 제공된다.

하나님의 어린 자녀들에게 복한 동무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과 동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며 끝된 행사를 통해 우리 소년부 찬양대원들 및 참가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통일된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섬기는 미래의 일꾼으로 아름답게 자라날 수 있도록 성도들도 기도 동참해야 하겠다.

가정·결혼·연애 나눔마당

'가정·결혼·연애'에 대한 성경적 가치관 확립이 시급합니다
5월 4~5일 충현기도원에서

청년1부의 주요행사로 자리잡은 가정(가정, 결혼, 연애)세미나가 올해부터는 '가정·결혼·연애'로 명칭이 바뀌어 5월 4일(목)저녁부터 5일(금) 저녁까지 1박 2일동안 충현기도원에서 열린다. 이 나눔마당은 세상이 아무리 달라져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고귀한 진제 아래 진행된다. 이를 통해 충현의 젊은이들이 성경적인 연애관과 결혼관, 가정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성도들의 깊은 관심과 기도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회비는 1인당 5000원이며, 참가대상은 성경적인 인생관과 가정관을 확립하고자 하는 교회 내의 젊은이 누구나이다.

주요 프로그램

주제 강의

1. 의미있는 만남: 좋은 대상의 깊은 만남이 사람을 변화시킨다.
2. 성서적인 결혼관: 하나님의 연합하리 한 몸을 이루라.
3. 대화: 자기 자신의 생각이 대화의 출발점, 자신의 습관적인 사고방식을 깨고 있어야 한다.

* 이 밖에 가정행전, 기독교 결혼문화, 배우자 선택, 사랑의 아름다움, 치유, 성경에 기초한 남녀의 위치와 역할, 야곱의 우물가, 젊은 그리스도인의 멋진 만남을 위해 등의 다양한 선택적 강의가 준비되어 있다.

제1회 주간충현 신앙수기 공모

지난 4월 9일에 마감한 제1회 주간충현 신앙수기 공모에 신앙수기들을 제출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응모한 수기들은 심사한 결과 금번에는 각각 두편만 뽑기로 하였습니다.

각각 수상자들은 다음주일(5월 7일) 오후 2시까지 주간충현 편집실(선교관 3층 303호)로 오시기 바랍니다.

* 금번 공모에 참여하신 성도님들께서는 다음주일(5월 7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편집실에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충현기도원

**다니엘관 보수공사가 완료
4월 25일, 입주감사에배**

작년 12월 6일 시작되었던 충현기도원 다니엘관 보수공사가 완료되어 당회서기 및 행정지원장, 건축위원회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4월 25일(화) 오전 입주감사에배를 드렸다. 보수된 다니엘관은 입구 맞은편 벽이 대형 유리창문으로 처리되어 자연채광으로 실내 분위기가 밝게 바뀌었으며, 기존 골조 외의 출입문과 각 방의 문과 창, 지붕까지 완전히 바꾸어 매우 견고하고 안정적인 모양으로 새롭게 단장되었다.

현재 다니엘관에는 총 15개의 크고 작은 방들이 있다. 입주감사에배를 드린 관계자들은 새로워진 다니엘관을 담은 성도들이 이용하여, 충현기도원을 중심으로 온 교회에 기도의 불길이 일어나기를 기도하였다. 한편 다니엘관 공사가 끝남에 따라 현재는 예스터관 보수공사가 시작되었다.

선교위원회 외선부 교사모집

선교위원회 외선부는 최근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의 말씀으로 섬길 교사들이 현저하게 부족하여 다급히 교사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교사의 소명과 재능을 가진 성도님들의 많은 지원을 기다립니다.



▲ 지난 주일에 모인 외선부 지체들과 교사들

공동의회 개최 공고

2000년도 교회일꾼 장로·안수집사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 개최를 공고합니다

일 시: 2000년 4월 30일(오늘) 4부예배 후
장 소: 충현교회 본당 예배실
대 상: 총현교회 등록 세례교인
의 안: 장로 및 안수집사 선출을 위한 투표

충현교회 당회장 위임목사 김 성관

CUP OF SALVATION

(Psalm 116:12-19)

"How can I repay the LORD for all his goodness to me?
I will lift up the cup of salvation and call on the name of the LORD..."

Psalm 116 is part of the traditional hymns (Psalm 115-118) that were sung during the celebration of Passover. This particular song is one of personal thanksgiving, especially designed for worship. When you read the opening verses, your spiritual eyes can see the makings of the Lord's Supper. Let's look at them, "I love the Lord, because He hears My voice and my supplications. Because He has inclined His

mercy and grace in sparing them from the tenth plague of death and delivering them from the bondages of slavery in Egypt. You'll remember that it was the lamb's blood placed on the doorposts and lintel of believers' homes that protected them. Surely crucial, but only temporary. Jesus' blood is the only blood that provides eternal security. After the

Passover Lamb that spared all God's children from eternal death.

It was the chosen people of God that crucified our Lord and Savior. Instead of drinking from the cup of salvation, they drank from the cup of judgment, "Rouse yourself! Rouse yourself! Arise, O Jerusalem, You who have drunk from the Lord's hand the cup of His anger; the chalice of reeling you have drained to the dregs" (Is. 51:17). The Cup of salvation is the blood of Jesus. To sinners it brings salvation. To others it brings judgment. Gracious people receive life. Rebellious people receive death.

Indeed, Christ lifted up the cup of salvation and called upon His Father (see v.13). "And He went a little beyond them, and fell on His face and prayed, saying, 'My Father, if it is possible, let this cup pass from Me; yet not as I will, but as You will'" (Mt. 26:39). In the presence of God's chosen, Jesus died. It was hard for Him to die, but He died as a servant who offered Himself as a sacrifice for the sins of the world, in thanksgiving to God (vv. 15-18).

All need to be made right with God by His grace, which is a free gift. They need to be made free from sin through Jesus Christ. God gave Him as a way to forgive sin through faith in the blood of Jesus (see Rom. 3:24-25). Those who obey from love receive grace. Those who obey from judgment receive hell. Jesus obeyed from love. He cries out, "In the courts of the Lord's house, In the midst of you, O Jerusalem, Praise the Lord" (v.19)! Jesus earnestly

Jesus' blood is the only blood that provides eternal security.

After the historical exodus, God's people lived under His law

They observed the Passover meal under law. When Christ died, He tore the curtain of the Holy of Holies in two, so that all could enter into the presence of God purely.

Now, God's people live under grace.

The law of God is meant to condemn sinners, the grace of God is meant to free them. What a blessing!

ear to me, Therefore I call upon Him as long as I live. The cords of death encompassed me And the terrors of Sheol came upon me; I found distress and sorrow. Then I called upon the name of the Lord: 'O Lord, I beseech You, save my life' (vv. 1-4)! Can't you picture Jesus on Calvary Mountain? When the terrors of Hell fell upon Him, did He not cry out, "Eli, Eli, Lama Sabachthani?" This wonderful Old Testament Psalm enlightens the deeper meaning of the Lord's Supper we find in the New Testament. It's an amazing thing to see that not only Matthew, Luke, John, Acts, and 1 Corinthians contain this concept, but that the Old Testament embodies it.

Today, Choong Hyun celebrates communion. It is our special time to honor Christ's command,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by sharing in the bread of life and the cup of salvation. We eat of the bread and drink of the cup in memory of the significance of Christ's death. For us the cup of salvation brings blessings, but for Christ it brought suffering. We weren't redeemed with perishable things, "but with precious blood, as of a lamb unblemished and spotless, the blood of Christ" (1 Pet. 1:19). Amen! God sacrificed His only Son on the cross, so that we could live! Our salvation is received through Jesus. His precious blood is the only thing that removes the stains of sin and thus provides a way for salvation.

Prior to Jesus' death, Passover symbolized the salvation of God's chosen people. It was a permanent ordinance, commanded by God, commemorating His

historical exodus, God's people lived under His law (known as the Torah). They observed the Passover meal under law. When Christ died, He tore the



curtain of the Holy of Holies in two, so that all could enter into the presence of God purely. Now, God's people live under grace. The law of God is meant to condemn sinners, the grace of God is meant to free them. What a blessing! Jesus Christ was the

calls us to His table. My beloved, the blood of Jesus is the cup of salvation. Let's drink of it today in thanksgiving and in remembrance of His suffering death. 



김성락 목사

구원의 잔

(시116:12-19)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미리 예언된 사건

시편 116편은 115편에서 118편까지 이어지는 전통적인 찬송사의 한 부분입니다. 이 찬송사들은 유월절을 기념하는 의식에서 불려졌던 것들입니다. 특히 116편은 예배를 위해 만들어진 개인적 감사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이 노래를 열여섯 번 구절을 읽을 때, 우리의 영의 눈에는 구원의 만찬의 장면이 떠오르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인은 1절부터 4절에 걸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시므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 도다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을 기도하리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치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와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이 구절을 읽을 때, 우리들의 심령에 갈보리 언덕에 달리신 예수님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저옥의 고통이 덮치고 있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소리치셨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 따라서, 이 놀라운 시편의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자기 몸을 내어주신 주님의 만찬의 의미를 더욱 깊이 깨닫게 해 줍니다. 신약의 사건이 구약 속에 이미 감추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요한복음과 사도행전, 그리고 고린도전서 등에 담긴 주님의 만찬 사건을 구약의 말씀이 이미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기만 합니다.

그 보배로운 피만이

오늘 우리 중헌의 성도들은 이 예배를 통해서 성만찬을 기념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의 예배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을 지키는 매우 특별한 시간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떡과 구원의 잔을 나눔으로 이 특권을 누리입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피를 기억하면서 떡과 잔을 먹고 마시게 될 것입니다. 구원의 잔은 우리에게만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이었습니다. 영원하고 흠 없는 그 피가 없는 우리의 구원은 불가능합니다. 이 땅에 속한 썩어질 것으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흠 없고 잡 없는 이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만 것이니라’(골3:1-3).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 위에서 희생시키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가져 받는 것뿐입니다. 그의 보배로운 피만이 모든

죄의 흔적까지 도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증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가 있기 전, 이미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통해서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

리고 그 율법에 따라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쏟으시고 돌아가셨을 때, 성전 지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율법의 지배를 벗어나서 순수하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백성들을 율법

에서 구원의 잔을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죄인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피입니다. 은혜를 입은 백성들은 그 피를 통하여 생명을 얻었습니다. 물론 그 피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배반한 백성들로써 죽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 낮추신 은혜

실로, 그리스도는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그의 아버지를 향해 부르짖으셨습니다. “조금 나아가자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열드레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 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마26:39).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 예수님은 죽음의 길에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에게 있어서 아버지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야 하는 그 죽음의 길은 너무나 험거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 종의 자리까지 낮아져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가운데,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속죄제물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15-18절).

그 사랑에 순복하라

모든 사람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바른 관례를 복복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 그 아들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파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롬3:24-25). 하나님의 그 사랑에 순복하는 사람은 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거절하는 사람은 심판을 자초하여 영원한 지옥에 던져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랑으로 순종하여 자신을 드리셨습니다. 그가 외치셨습니다. “예루살렘아, 네 가운데서, 여호와의 전정에서 내가 갈조리다 한들 뭐야”(19절). 예수께서는 열심들 하되 우리들 그의 식탁으로 초대하여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을 예수님의 고통과 죽음의 피를 기념하면서 감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곧 구원의 잔을 오늘 함께 마시십시오. 아멘!

역사적인 출애굽 사건이 있은 후,
하나님의 백성들은 소위 토라로 알려진 하나님의 율법 아래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에 따라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쏟으시고 돌아가셨을 때,
성전 지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율법의 지배를 벗어나서
순수하게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율법 아래로부터 은혜 아래로
옮기는 사건이었습니다.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평하신 영원한 의식이었습니다. 그것은 애굽에서 행하신 열 가지 재앙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고, 노예의 속박으로부터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는 의식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 의식의 핵심은 양의 피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양의 피를 자기 집의 문지방과 좌우 설주에 발라야 했습니다. 이 의식은 결정적으로 중요한 의식으로써 결코 일시적인 처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영원한 안전으로 인도하고 지켜주는 피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의식이었습니다.

찢어진 휘장

역사적인 출애굽 사건이 있은 후, 하나님의 백성들은 소위 토라로 알려진 하나님의 율법 아래서 살았습니다. 그

아래로부터 은혜 아래로 옮기는 사건이었습니다. 율법은 죄인을 정죄하지만, 은혜는 죄로부터의 자유를 선언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양이 되심으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건지주신 것입니다.

진노의 잔 구원의 잔

사실, 우리 주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박은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입니다. 우리들은 구원의 잔 대신에 심판의 잔, 진노의 잔을 마시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여호와와 손에서 그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갠지어라 갠지어라 일어나서 네가 이미 비틀결을 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셨다 하였도다”(사51:17).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우리가 구원의 잔을 마시게 되었고

수단 유스 하우스('젊은이들의 집')에서 온 우리 지체들의



‘충현교회 성도님들께’

수단에는 우리 교회에서 지원, 운영하는 신실한 크리스찬 젊은이들의 공동체인 'Youth House'란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함께 속속하며 젊은이들을 말뚝하고 기도으로 무장시키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참 제자로 훈련, 양육하여, 수단의 곳곳으로 파송하기 위한 훈련센터입니다. 현재 이곳에는 3명의 고등학교생, 5명의 대학생, 2명의 일반인들로 구성된 10명의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하루 일과를 오전 30분 새벽기도로 시작하여 낮 동안에는 각자 학업을 한 후 저녁 8시 저녁 기도회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이들 10명의 젊은이들은 각 모임의 리더들로서 저희 3명의 단기평신도선교사와 함께 많은 부분에서 동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 특히 3월19일자 '주간강연'에 소개된 6명의 수단 젊은이들을 소개합니다.

●아브라함 가르코쓰

- 법대생, Youth House 대표,
캄버스기독교학생모임(CMC) 리더
- 데이빗 뎀 -대학생, 평신도성경공부(UTC) 리더
- 존 슐 -의대생 캄버스기독교학생모임(CMC) 운영리더
- 스티븐 기리루트 -고등학교생
- 토마스 부드 -고등학교생, 기독교동학생모임(SMC) 리더
- 존 위알 -고등학교생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충현교회 여러분께 문안드립니다. 수단에 하나님 나라의 건설과 확장을 위해 끊임없는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충현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매년 잊지 않고 찾아와 헌신을 아끼지 않으신 의료선교팀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수단은 오랜 기독교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아직 어린이와 같이幼稚합니다. 수단 땅에 온 부흥의 불꽃이 일어나도록, 많은 젊은이들이 말씀 가운데 양육되고 훈련되어지도록,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을 위해 헌신하신 Youth House 그리고 있습니다.

Youth House에서 아브라함 그와 친구들

‘평은희선교사 기도편지’

한국을 떠난지 벌써 9개월이란 시간이 되어갑니다. 특별히 언어를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시고 모세가 사역을 하기 전에 40년의 방랑의 시간을 보냈던 것처럼, 저에게 9개월간 방랑의 훈련을 받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Ken에서

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 '마이크'와 '무이타'와 함께 매 주일마다 케냐 나이로비 대학에 가서 학생들과 만남을 갖고 같이 찬양하며, 성경공부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들의 심령 깊은 곳에서 손뼉과 찬양하며, 웅기종기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주님의 일꾼으로 훈련되어지는 이들을 통해 케냐 땅의 미래뿐 아니라, 아프리카의 미래를 보며, 정말 흥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이에 대학에서 한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양육되어, 고등학교 수학교사를 포기하고 케냐에서 신학교를 마치게 된 '피델'이라는 르만다 형제는 좋은 환경의 케냐 나이로비에서 머물 수도 있었지만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민족 르만다를 위해 헌신하여 그 땅에 들어가 예수님의 제자를 키우고자 했습니다. 또한 그를 돕기 위해 케냐의 대학생 두 명이 헌신하여 그곳에 간다고 합니다. 한 선교사를 통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인 일어난 것입니다. 지도 제2의 피델과 같은 사람을 키우는 선교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수단으로

케냐의 맛사이부족을 섬기려고 나왔으나 언어훈련을 마칠 즈음에 수단에 장기 선교사의 필요에 따라 저의 선교지를 수단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3월 중순경에 수단에 들어가려고 준비하면서 케냐에서 수단바다를 얻는 것이 그리 쉽지않은 일이었지만(전혀 사정이 좋지 않은데다가, 아프리카 특유의 황당한 일처리 방식) 거의 한달 정도 기다려야 했습니다. 모든 것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가장 알맞은 주님의 시간에 우리를 수단

땅을 밟게 하심을 바라보며 저는 지난 3월25일 늦은 밤 수단에 안전하게 도착하였답니다.

수단은

참으로 뜨거운(밤에도 40도를 오르내리고 있음) 햇빛 아래 무언가를 활동력있게 일하기에는 알맞지 않은 날씨에 하루에 팔도 곳으로 통화를 통하여 나오는 기도소리로 선교관방에 나와 있음을 실감하지 않을 수 없는 곳이 바로 수단입니다. 수단은 9개국으로 둘러싸여 있는 나라로서 수단 북부 지방부터 북부아프리카가 전부 강한 무슬림권으로 그 색채가 점점 남화하고 있는 형편에 수단은 선교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40년간의 내전과 오랜 기근으로 고통이 끊이지 않는 이곳에 회교70%, 기독교19%(개신교는 약7%), 9.9%는 정경승세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전도활동이 금지되어 있고 지금은 더욱더 이슬람의 세력들이 거세게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모든 초등학교에서 이슬람교육을 하도록 강요하고 있으며 북부와 남부의 갈등은 참으로 심각하며 자국민 도해와 세계가 놀라고 있습니다.

수단에서의 사역

지금은 르만다로 사역을 할 신학교 선교사님이 5년간 이곳에서 사역을 하신 여러 분자가 있습니다. 아직은 연약하지만 7개의 교회와 각 교회에 부설 유치원과 예즈라 성경학교와 신학교, 아랍어를 위한 언어학교와 젊은이 모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곳에는 아주 귀하고 신실한 3명의 단기 평신도선교사(권영일, 박수인, 주은희)와 7명의 협력선교사(장기영)가 함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신학교에 관해서 이집트에 선교사 이준교 선교사님이 함께해 주시고, 그 나머지 부분들은 저의 책임 아래서 모든 것이 진행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신도에게 무관심한 제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께로 감동할 수 있게 하신 줄 믿고 주님께 감사로 드리며, 주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또한 아무 돈이 없던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 때 주님께서 이슬람의 세력을 깨뜨리시고,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모든 무물이 예수님의 발앞에 무릎을 꿇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 날을 바라보니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언어훈련

수단은 아랍어가 공용어인 나라로 영어만으로는 언어소통이 잘 안된답니다. 그래서 저는 4월부터 아랍어를 새롭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모두들 어렵다고 하는 아랍어를 이제 겨우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선교지의 언어를 배운다고 생각하라고 마음 깊은 곳에 기도와 기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주실 때에 언어에 진보가 있음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동역자님의 특별한 기도가 필요하고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고 기도의 성장으로 이 땅과 영혼들을 사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저의 소식을 나누습니다. 주님의 은화기 아니면 한순간에 살 수 없는 자임을 늘 인식하며 부족한 것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동역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선교사는 중보기도를 먹고 산다"는 말을 다시 기억하며 이제 케냐가 아니라 수단 땅에서 동역자님과 관계된 모든 것 위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문안인사를 드립니다.

E-mail: rizjeoung@hanmail.net

스리랑카에서

살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껍껍을 얹던 저를 위해 많은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신 덕분에 건강을 회복하였습니다. 이 기간을 통해 스리랑카에 저 혼자 가 아니라 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있어 일하고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와 계속 교제를 나누는 지트와 아줄마는 제 소식을 듣고 신대 아저씨(남편)와 함께 자주 방문해 주셨고 지난 12.13일 스리랑카의 새해에는 저와 니르말라는 친척을 초대해 주어서 많은 가족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이 가정은 우리 교회 단기선교를 통해 알게 되었는데 종교선교(불교)는 약하나 교육열은 높고, 단기간에 매다 더 최후를 도와주십니다. 이들과 지속적인 교제를 위해 매 주 한 번, 불꽃씨를 가르쳐 주고 언어를 배웁니다. 최근 기독교에 대해 궁금해하는 한시에 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녀의 유일한 가운은 대학을 입학 이슬람, 힌두교, 기독교에 대해 더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직은 믿지 않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실 것이라는 확신이 들어 더욱 힘

있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의 복음화, 한시와 가운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명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또 저와 함께 살고 있는 니르말라는 친척에 대한 소망을 품고 기도 - 말씀으로 성장중인데, 그를 위하여도 기도해 주세요. 제 여가지를 하는 일은 스리랑카인들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 뿐입니다. 가장 쉬운 일임에도 가장 힘겹게 느껴지는 것은 제가 살아 있기 때문에 발견하게 됩니다. 스리랑카에서의 일련의 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는 양자의 생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나라의 회복을 소망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주진희 단기 평신도선교사 올림

제1회 주간충천 신양수기공모전 가작

“아가씨, 예수 믿으세요.”

이 해자 (권사, 12교구)

결혼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 날도 꽃 피고 새 우는, 햇살이 눈부신 봄날이었습니다. 일찍 퇴근한 뒤, 가사를 돕기 위해 동네 시장을 둘러보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시장 길 모퉁이에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아가씨,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네? 나에게 내이는 종이 꼭지를 영접결에 받아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죄가 많아서요.” 나는 그때 세상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분은 반색을 하며 “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시 오셨습니다. 꼭 믿어 보시고 교회에 나오세요.” 그리고 다음 말을 잊지도 전에 지나치고 말았습니다. 내가 난생 처음 받아 본, 그 종이꼭지를 (지금 생각하니 전도지) 전해 준 여인은 생각지 않겠습니다. 내 단 거리와 통치마를 입었고, 동그란 얼굴은 웃는 상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옛날 여전도사의 모습이었고, 지금의 내 나이정도로 보였습니다.



같은 동료로 지내던 친구가 나의 신앙이 되기 전, 결혼할 마음을 다져 양가 부모님과 함께 하는 자리를 만들게 되었는데...약가! 이게 웬일인가. 내게 복음을 전했던 그 전도사 같은 여인이 내가 결혼하게 될... 바로 시어머니가 될 분이 아니었던가요! 나의 친정 식구들은 아직 예수님을 몰랐고 종교관에 ‘유교’라고 쓰인 시였었습니다. 알고 보니 같은 직장에 근무하던 총각인, 지금의 남편과 밤을 해 주시려고 사골에서 올라와, 근처에 방을 얻어 지내고 계실 때, 열심히 전도

조신자를 위한 신앙강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 (2)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의 의미를 여러 가지로 묘사합니다. 예를 들면 속전, 구속, 칭의, 구원, 화해, 양자복음, 용서함입니다. 이 단어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위에서 말한 하나님의 사랑 의에 두 가지 큰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십자가 안에는 죄의 속죄, 죄의 용서가 있습니다. 우리는 간혹 이런 사람을 만납니다. “이렇게 나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 십자가를 지셨고 죄값을 완복하게 되셨다고 믿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용서되었습니다. 진실로 용서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여 사람됨은 죄인으로서 나날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받아들이지 수 없음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받아들이심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중화하시지만 죄인은 사형당합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셨음을 말씀합니다. “진히 너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제책에 맞음으로 너희는 마음을 얻었나니”(벧전 2:24).

둘째, 십자가 안에는 죽음에서의 승리가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많은 사람들은 죽음과 싸워 왔습니다. 진시황제부터 현대의 생명공학에까지 인류가 싸우는 최후의 적은 에이즈나 암이 아니라 바로 죽음입니다. 우리는 죽음이나 아닌 다른 누구에게 일어나는 일이라

요즘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MBC 창사 특집 드라마 ‘허준’

복음의 눈으로 세상보기

허준은 분명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작가가 드라마를 통해 보여주려는 메시지가 시 복음적인 삶의 모습은 더더욱 아닙니다. 스승의 가르침과 죽음의 앞을 두고 맹세하고, 병자를 사탕하는 의원의 삶을 살기 위해 치열한 고군을 하는 한 인간의 인위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 허준의 모습 위에 예수님의 공생애의 모습을 오버랩 시켜보자. 구제에 있어서 그리스도인과 인본주의자의 외형적인 모습은 참으로 유사하다. 기독교에선 휴머니즘의 강조를 달가워하지 않으나 때론 우리의 소극적인 모습으로 말미암아 많은 부분에 있어서 휴머니즘으로부터 도전을 받는 것이 사실이다.

얼마 전 발생한 동맹안 산발...으로 인해 막대한 산림 소실과 재산피해가 났고, 8백여명의 이재민과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방송에서는 연일 모금을 위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정계, 재계, 교계 등 각 분야에서 여러 활동이 진행되고 ARS의 덕분에 누구나 전화 및 봉투로도 구제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다. 도움의 손길이 끊이지 않는다는 사실은 참 감사한 일이다.

하지만 이즈음에서 한번쯤 돌아보기 원한다. 구제의 바른 모습은 무엇인가? 사도행전 6장에서 보게되는 초대교회의 구제는 단지 필요한 물질만을 제공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결코 허준의 모습을 이상형으로 제시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복음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말하고 있다.

우리 기독교인의 이웃사랑 실천이 여타 종교나 인본주의자들과 확연히 구분되는, 위해 기도하듯, 물질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소망의 복음을 전함으로 온전한 구제(영원한 생명을 전함)를 이루어야 한다.

기독교인들의 구제의 왕국은 이 땅에서의 고난보다 부활의 신앙을 바탕으로 믿음으로 가능한 것이다. (박철홍 전도사)

새가족을 소개합니다

‘꼭금자’ 성도를 소개합니다



기독교계통고등학교 3년차 체류기간에 성장맞춤을 배워가게 된 꼭금자씨는 안다는 자매님은 학교 졸업 후 누군가 강력히 권하는 이가 없었기에 교회와 연결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혼 후에 친정 어머니와 동생의 기도와 적극적인 전도로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고, 마침 같은 건물에 사는 황진은 집사님의 인도로 우리 교회에 등록하게 되고 새가족부 집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말씀으로 있다고 대답해야 하는데... 자신의 삶이나 성경의 모든 요구에 대해 부족하고 부끄러운데도 그렇게 말해야 할지 망설임이 없다고 합니다. 교회나 학교나 믿음은 생기면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남편과 식구들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자매님은 시각에서는 차를 믿는 자이고 다른 가족들은 불교신자입니다. 가족복음화를 위한 중보기도를 요청합니다.

한숙정 (새가족부 통신원)

고 생각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그 대상에 나도 포함된다 고 생각하고 되면 매우 혼란스럽고 난감해집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죄와 죽음을 넘어서 하나님의 승리를 증거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자녀들은 현혹에 함계 속하였음에도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현혹에 함계 속하신 사람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받은 자 곧 마귀를 이기지 못하리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리니 하심이니”(히 2:14-15). 우리는 죽음을 이미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정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용서와 승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역사에 동참하기 위해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니시된 주사 한 방이면 폐렴이 깨끗이 낫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폐렴에 걸린 환자 개명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이런 지식을 소유하는 것만으로는 안됩니다. 폐렴이 낫는 것을 실제로 맞아 봐야 합니다. 물론 베니시된 주사를 맞았을 때 몸 안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자신이 치유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파란갑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인간의 곤궁한 죄 문제의 진정한 해결책이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것만으로는 치유책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어야 합니다. 물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서 당장에 눈에 보이는 의면적인 어떤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최모두를 사후에 되고 죄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기쁨이 넘치는 치유가 일어나는다는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전진철)

내 입의 진송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차도"

동 지 현 (집사, 대학부교사)



초등학교 2학년 때, 열일곱 살이던 나는 아주머니 댁을 지나 는 길에 우연히 들었다. 그 아주머니는 빨래를 하면서도, 설거지를 하면서도 연신 흥얼흥얼 콧노래를 부르시면서 그 일을 즐겁게 하셨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어린 나는 "아주머니, 무슨 노래예요?" 라고 물어 보았다. 그러자, 그분은 더 크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시면서 "교회에 가면 이런 노래도 가르쳐 주고, 재미있는 이야기도 해주고 또 이런 저런 재미있는 것들이 많단다" 라고 자랑하셨다. 그러면서 나에게 "이번 일요일에 나와 같이 교회에 가지 않으면?" 하고 물으셨다. 나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예" 라고 대답하였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아름다운 초대인 줄도 모르고.

오만하며 자신만 알던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모든 것을 하나씩 새롭게 바꾸셨다. 그러던 어느 날, 내가 잘 알고 있었던 찬송가가 갑자기 밝은 빛을 비추며 내 눈에 박혔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차도 주가 즐겁게 하시리라 아침 해같이 밝히는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라 슬픈 마음이 위로 받네"

크리스천으로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한다고 생각은 했지만 그것은 마음 한편 부담이었는데 바로 그 십자가를 맡게 떠오르는 아침 해같이 밝은 기쁨이 지고 가라... 나는 눈물자나 뜨고 확인하고, 또 확인해 왔다. 미칠 수가!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면 우리 마음이 위로를 받는다!!! 이웃집 아주머니의 찬송가 때문에 교회에 나가게 된 내가 지금은 너무나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 찬송을 부른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솜씨인가. 내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내가 기쁨으로 따르겠다는 고백을 하게 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에 슬픔이 가득 할 때 우리의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하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즐겁게 하신다는 것이. 그래서 나는 오늘도 이 찬송을 기쁜 마음으로 부른다. 내 평생 그리 될 것을 기도하면서... "너 근심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게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나의 직장상사

조문수
(집사, 중등부 교사)



20년이 지난 지금도 나에게는 기억에서 잊혀지지 않는 직장 상사가 있다. 늘 부하직원들을 편안히 돌보아 주시는 분으로 우리들을 얹혀놓고 이야기 하기를 즐거웠다. 그중에 기억나는 것들을 적어 본다.

이야기 하나

예환을 강아지를 무척 좋아하였던 아저씨였었다. 그래서 그 강아지에게 아저씨를 무척 따랐다. 하루는 아주머니가 빨래를 하고 있는데 강아지가 강간치며 매달렸다. 그러나 아주머니는 일이 방해되므로 강아지를 손으로 밀어내며 "네 이빠한테 가 놀아" 라고 했다. 아저씨는 자기네 강아지의 이빠라고 하였으나 그 말이 듣기에 썩 싫기가 없었다고 한다. 아무리 강아지를 좋아하기로 개와 동격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실재로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한 경우가 현실적으로 있으니 바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다.

이야기 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도록 명하셨다. 아무런 이유나 설명도 없이 외아들을 염소처럼 도목하고 대취하라는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떠하였을까? 비록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막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서는 외아들을 제물로 바치도록 명하셨다. 그것도 인간의 고통과 수치심을 극대화하는 십자가의 처형으로. 무엇 때문에? 믿음의 자손들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도록 명하신 것일까? 믿음의 조상으로 하여금 자식을 희생시켜야만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고통의 깊이를 헤아려 보도록 한 것이었을까? 그래서 나의 상사는 아브라함의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장면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과 아버지 하나님의 크로움이 생각나 눈물난다고 했다.

강중 하나

나의 직장 상사는 무슨 전도훈련을 받은 뒤 가장 과정으로 전도실습을 나갔다. 한 사람 이상 전도를 하고 결신하도록 하여야 수료하는 데, 아무리 노력하여도 잘 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포장마차에 틀러 혼자서 술을 마시고 있는 남자를 데리고 대상으로 삼았다.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고 그 남자에게 전도지를 건네주며 예수님을 믿도록 권유하였다. 그는 너무도 쉽게 마음을 열며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약속했다. 그리고는 쥐고 있던 주먹을 펴쳐 보이는데, 손바닥 위에도 많은 알약들이 있었다. "나 이제 막 죽을 걸맞아요. 그런데 나에게 왜 이제야 전도하는 거요?" 그는 말했다. 전도는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 후로는 전도하기가 쉬워졌다. 이제 나에게는 이같은 이야기를 들려줄 직장상사가 더 이상 없다. 지금 나는 그때 그 상사보다도 더 나이가 들었다. 그러나 나더러 이제서 후배들에게 나의 상처처럼 강중도 말씀도 전하기가 쉽지 않다. 빛지고 살기 말아야 할텐데...

제1회 주관종헌 신영수기공모전 가작

내가 만난 예수님

문영숙(집사, 1교구)



잘 자라주었고, 나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남들이 부러워한 만큼 경제적인 기반을 굳혔다. 오래 가지 못했습다. 친구에게 빌려주었던 돈을 회사 부도로 인해 한 푼도 건지지 못했고, 정월도 없이 시작한 가게는 많은 피해를 보고 정리를 해야 했습니다. 남편은 술 때문에 걸린 약성위계양으로 세 번이나 수술을 했지만 걸이 약 5.6개월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 딸아이가 울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더군요. 나는 만약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환한 것치고 살아온 내게 이런 혹독한 시련과 고통은 주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온갖 고생을 하던 중 남편은 오랜 투병생활 끝에 엄청난 빛난 날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일이 수습되기도 전에 딸아이는 시집을 갔고, 아들아이는 군복무 중이어서 나에게 심한 우울증과 노이로제, 감당할 수 없는 별 특목밖에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전보다 못해 찾아간 곳이 국립정신의료원이었습니다. 정신치료를 받으면서 마음의 안정은 찾았으나, 무일푼이었던 나는 이웃 아주머니의 권유로 파출부 일을 하면서 생활의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남편 장례식 때 딸아이가 출석하던 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을 수고하신 모습에 생각나자 마음의 빔을 게을리 먼저 감기로 교회 매주일 교회에 나가, 찬양 대원으로 봉사하면서 교회학교 교사들에게 점심을 제공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중헌교회 근처로 일지리를 주었고, 오래지 않아 작은 식당도 생업으로 주셔서 경제적인 안정을 찾아가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막에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시키신 것처럼 부족한 딸을 사막에서 만나 나를 주시고 생업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믿음으로 있는 교회까지 출석하는 나를 교통봉사사라는 집사님께서 추천교회로 인도하셨습니다. 두 달 동안은 예배만 드려가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등록하고 새가족 양육을 받으면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에 못박히심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에 감사하

며 신앙생활을 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저에게 큰 시험이 왔습니다.

지난해 3월 건물주로부터 가게를 빌리 달라는 통고를 받은 것입니다. 세상의 비정함과 적개 가진 것에 한이 맺혀 눈물마저 말라버렸습니다. 그 동안 투자한 시설비와 권리금을 한푼도 못 찾고 걸려있는 내물리는 나 자신이 너무 불쌍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천지를 창조하신 오직 한 분뿐인 하나님께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있기 때문에 구역 직구들에게 기도부탁을 하고 금식을 하며 나 자신을 되돌아볼 시간을 가졌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시련과 고통을 주시는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니 산 것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고 뒤돌아볼 수 있는 중요한 기회였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전도회나 기도회에 불참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드린 것 없이 물질 달라고 떼고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못한 것이 필멸처럼 느껴져 나갔습니다. 날마다 새벽기도회에 참석하여 눈물이 범벅이 되도록 침묵의 기도를 드리고나, 내 마음을 감싸주는 따사로운 평안은 찾아왔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열심히 기도하던 중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터전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작정한 날은 아직 보름이 남았는데 보일리 가게를 하신다면, 갑자기 이사를 하게 되었으니 나더러 가게를 인수하시라는 것이었습니다. 허술하고 엉성하던 보일리가게를 기도하면서 서당으로 개조하니 너무도 아름답게 변했지요. 이 식당을 나의 생업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부모 형제, 자녀도 나의 이름을 대신할 수 없으나 오직 주님만이, 나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제각각 지리별 병마리 신앙인들 나를 양육시키시고, 지금까지 저를 이끌어 때마침 사당으로 감싸주시며 기도해 준 내 권사님, 여러 분의 목사님, 전도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블로 집안에서 태어나 우상숭배 하는 것을 최고의 신앙인 줄 알면서 성장했습니다. 부모님의 뜻대로 정해진 결혼을 하면서 내 인생은 버려지려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두 아이의 어머니가 되었지만, 남편의 폭력과 방탕 때문에 우상을 짓고 후다거리를 하는 동안 인생의 굴곡을 할 수 있는 것조차 없었다. 하지만, 그런 생활 속에서도 아이들은 예수님을 믿으며

지체들 소식

유치부

초창전도주일

한마리의 잃은 양을 찾아 유치부에서는 4월 28 일을 유치부 '초창전도주일'로 지킵니다. 선한 목자되시며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유치부 전 교사가 좋은 목자가 되기를 다짐하는 이번 주일에는 6세에서 7세에 해당하는 어린이들을 초청합니다. 이 날을 위해 많은 프로그램과 처음 오는 어린이, 전도한 어린이에게 줄 선물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주일을 맞이하여 사랑의 편지도 쓰고 있습니다. (김영미 통신원)

고등부

예수초창전도주일

고등부에서는 '세상에 무를줄지 않는 7000'명의 고등학생을 하나님 앞으로'를 목표로 5월 21일에 2000년 전반기 예수초창전도주일을 실시한다. 지난 2일에는 'VISION 7000 복음화 운동 발대식'을 통해 복음화 운동의 의미를 함께 나누고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재는 태신자 품기와 장기결석자에게 편지 보내기, 학생 심방 등을 통해 '1인 1배가 운동' 및 '잃은 양 찾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매주 선생님과 학생들이 모임을 통해 합심하여 중보기도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눈에 띄는 결과를 보이는 것은 아니나 남은 기간동안 더 많은 결실을 맺고자 준비중에 있다. 학생들과 교사들의 심방 속에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이 회복되고,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주님의 역사하심이 함께하는 날이 되기를 바란다. (박은경 통신원)

청년2부

부활절기념 중등원주일

지난 주일 청년2부 집회일은 '부활절'을 맞이하여 '충동원 주일'로 잔치집회와 같은 들뜬 분위기였다. 예수님께서 사방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심을 모두가 축하하는 마음이었다. '한 영혼의 가치'에 대한 목사님의 설교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피값으로 사신 자신과 형제의 영혼이 얼마나 귀한가를 다시금 깨달으면서 받은바 은혜를 나누었다. 예전과는 다르게 진행된 '동기'들 모임에서, 회원들은 얼굴은 알고 있었지만 동기를 잘 몰랐다면 즐겁게 악수를 나누면서, GBS(소그룹성경공부)를 가림책 동기모임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었다. '부활절기념 중등원주일'을 앞두고 교사와 면회회 회원들은 몇주전 전부터 매일 아침 기도, 장기 결석 회원들에게 전화심방 및 편지 보내기, 교회내 30대 성도들에게의 홍보 등 많은 준비를 했었다. 특히 목사님과 면회회 임원들은 금요일마다 충원기도원에 철야기도를 드려왔다. 모든 회원들이 기도로 준비했고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긴 '충동원주일'이었다. (박명자 통신원)

3교구/12교구

연합형성훈련

지난 20일(목) 주님의 은혜의 동산 충원기도원에 '민음으로 행하라'의 주제로 3교구, 12교구 연합형성모임이 있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형제자매의 연합일이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다. 특강1부의 '극히 큰 군대'와 특강2부의 '민의 자의 책임'이란 제목의 말씀 중가는 우리들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였다. 특강후 3교구 대 12교구의 즐거운 게임은 동경으로 끝났다. 서로가 협력하며 은혜의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전진갑주를 입고 집으로 돌아가는 교구 식구들의 뒷모습은 하나님의 큰 믿음의 큰 대라는 것을 확인하게 해 주었다. 올해도 3교구, 12교구대 믿음의 용사가 되어 많은바 직분들 잘 감당하기를 바란다. (박미경 통신원)

물매들

마음의 기도, 입술의 기도

정연희 (임사, 중동2부 교사)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때때로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한다. 그리고 이 몸속 버릇을 버리지 못한 채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도 한다. 우리는 자신들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를 할 때는 정말 마음이 간절해져서 기도를 한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성경적 되기 위한 부분에 있어서는 마음에 없는 입술의 기도를 할 때가 많다. 우리는 끝날 자신의 뜻과 주님의 뜻을 구분 못하고 자신의 뜻을 주님의 뜻인양 착각하여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고 기도할 때가 있다. 진실로 주님의 뜻대로 살라는 의지가 전혀 없는 사람이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고 입버릇처럼 구하는 것은 입술의 기도다. 예컨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기도의 처소에서 모두들 서로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낮은 목소리로 기도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지나치게 큰 목소리로 외치듯 기도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 결국 목상을 방해받은 사람들은 조용히 자리를 떠났다. 듣자하니 그의 기도는 자신이 겸손하게 해 달라는 것이었다. 겸손을 구하건만 무례하리 그치없는 그 기도는 입술의 기도다. 우리는 마음의 기도를 하기도 입술의 기도를 하는 오랜 습관에 익숙해져 있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마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을 때가 습관적으로 하는 입술의 기도를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어쩌면 기도의 진정성을 잃어버린, 마음에도 없는 입술의 기도는 기도라 아니다.



+ 양도실

9교구 신성자 집사(8지역, 수택구역) 난소암 말기로 수술을 3번이나 하였지만, 치료에 불가능하다고 하여 집에서 기도는 중입니다. 성도들의 많은 기도가 요청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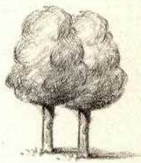
11교구 임성진 어린이(8세, 4지역 신당6구역) 할아버지가 모두 끝났는데 일주일에 3,4일만 학교에 간다고 합니다. 빨리 건강해져서 학교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기찬 집사(3지역, 중동구역) 간절염의 병원치료를 다 마치고 요양원인데 거동하는 것이 매우 어려우신다고 합니다. 완쾌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운동장

대학 부에서는 5

월 4일부터 5월 5일까지 텀블로 찍은 수련회를 갖는다. 예배(Worship)-말씀(Word)-탐-증인(Witness)텀으로 나눠서 갖게 될 이번 작은 수련회는 학기 중간에 갖는 명성훈련이라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다고 한다. 각 팀마다 수련회장소를 달리하고 있어서 대학생들은 자신이 속한 팀의 장소와 숙박시간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매년 방학교에 실시되었던 수련회를 학기중에 실시함으로 대학생 신분으로서 자기신앙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시간과 귀한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은혜되는 시간을 이 되기를 바란다.

뉴 크리에이터 (New Creator)
작 · 품 · 전 · 시 · 회

대학부 내의 소그룹 'New Creator' (새로운 창조자)가 '시작'이란 주제로 첫 전시회를 가집니다. New Creator란 올바른 영성을 가지고 온갖 악과 감격적으로 흐르는 현 문화를 하나님께 주신 '창조'라는 달란트로 미술을 통해 재창조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모임입니다. 이번 전시회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고 시작하셨던 것처럼 새롭게 첫 발을 내딛고 우리의 올바른 영성을 드러내고자 '시작'이라고 주제를 정했습니다. 이 주제는 전시회 참여 작가들의 전체적인 주제이며, 작가들은 이 큰 주제에 자신의 작품과 전공에 맞게 해석하여 소주제를 붙여 전시합니다.

참여자: 청년부 - 김희석, 이지영

대학부 - 강운선, 고종현, 권택원,

김종현, 이세희, 이하나, 최문정,

최지은

전시일차: 4월 29일 ~ 5월 7일

전시장소: 본당 지하1층

결식학생에게
희망과 사랑을!

결혼가정, 부모의 경제력 상실 등 어려운 집안 형편으로 많은 학생들이 결식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충원교회 중등3부와 학원전도회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학원전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결식학생을 돕기로 결정. 수시중 5명, 도곡중 5명, 휘문중 3명, 연복중 2명 등 충원교회 주변 학교의 학생들과 충원교회의 중, 고등부 학생들에게 점심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결식학생돕기가 계속적으로 확산되도록 여러분의 많은 후원을 바랍니다. 여러분의 정성 어린 도움과 기도가 이들에게 큰 힘이 되고, 더 많은 학생들을 도움 수 있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도움을 원하시는 분은 후원신청서를 작성, 제출해 주십시오. 보다 투명하고 계획있게 이 운동을 전개해 나갈 수 있도록 매킨가마다 진행상황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후원신청서 배부: 교회 사무국 황현주(552-8200 409)

문 의: 충원교회 중등3부 교사실 또는 학원전도회실

중등3부 교사 홍금진(789-6209, 011-382-3262)

충원교회 학원전도회 김민영 장로

